

I. 개 요

1. 일시 : 2012. 11. 2. (07:30~09:30)
2. 장소 : 서울 팔레스 호텔 (다봉)
3. 발표자 : 김진진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과장)

4. 참석자 : 총 11명

- 발표자 1인 및 외부 참석자 7인 등 8명
- 내부 참가자 3인

<외부 참가자>

최혁재 (외교부, WTO과 총괄 및 농업담당 1등 서기관)
 문한필 (KREI, 글로벌협력본부 부연구위원)
 송유철 (동덕여대, 교수)
 송주호 (KREI, 연구위원)
 신성균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본부장)

<내부 참가자>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이준원 (KIEP, 연구원)
 김정아 (KIEP, 주임연구조원)

4. 제 목

- WTO/DDA 협상 동향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협상 진행 경과

- '01.11월 UR 협상결과와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 가속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협상종료 방식으로 **일괄타결**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합의) 방식 채택
 - '02년부터 본격적 협상이 진행되어, 농산물·비농산물(NAMA)·서비스·규범·환경·지재권·분쟁·무역원활화·개발 분야 등에 **협상그룹 설치**
 - **농산물과 비농산물분야는 관세 및 보조금감축의 자유화 세부원칙 (Modalities)에 합의**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C/S)를 제출**하여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협상 진행
 - '03.9월 **칸쿰 각료회의** 및 '04.8월 **WTO 일반이사회** 논의를 거쳐 자유화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타결**, '07년 제출된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작업 진행**
 - '09.12월 제네바 각료회의 시 **'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현황 점검**에 대해 합의한 이후,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주요국간 입장차이로 합의도출에 실패**
 - '11.5월부터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 구성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미도출
- * 소규모 패키지: 최빈개도국(LDC)의제+수출경쟁, 수산보조금 등

- '11.12월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

- . 무역원활화 등 합의가능한 이슈를 중심으로 **조기수확**, 분야별 · 국가별 합의 등 다양한 협상 진전방안 모색 중

* RGF(Really Good Friends) 국가를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12.10.2~3. 실무급회의에서 협정의 구조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2차례 회의를 통해 협정의 프레임 워크에 대한 합의 도출 계획

* RGF : 우리나라, 미국, EU, 호주, 일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 향후 협상 전망

- 미국 · 중국 · EU 등 주요국의 낮은 협상타결 의지, 주요국 정치 일정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DDA 협상 진전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기합의 가능 분야, 일괄타결 원칙 유지 등에 국가간 이견**

* 회원국간 의견교환 및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심포지엄, 비공식 세미나*** 등 추진 계획

* 현재 식량안보, 글로벌 가치사슬, 농업교역 관련 국제기준, 수산 보조금 등이 추진중

- FTA 등 양자간 무역협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DDA 협상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반면, 양자간 교역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WTO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

- . 위원회의 **이행점검, 일반 통상 이슈**(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 대응, FTA협정 해석 등) 중심으로 **WTO 통상 관련 기능 강화**

- 내년 주요국 대선이후 DDA협상 본격 진전 또는 식량안보, 글로벌 가치사슬 등을 주요 이슈로 하는 **새로운 round의 논의가 대두** 가능성

2) 토론 내용

- 최근 2013년 인도네시아가 개최 예정인 MC9에 대비하여 약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선진국들은 여전히 무역원활화(TF)를 소규모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음. 특히 TF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음.

- 결국 TF에서도 핵심은 CB/TA 문제인데 이를 위한 기금을 선진국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대립이 여전하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최근 들어서 과연 TF 등이 타결되고 설령 선진국들이 기금을 만들어 개도국의 TF를 위한 시설이 지어질 경우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두고 개도국에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결국 수출선진국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 브라질이 선진국 주도의 TF 중심의 small package 논의에 제동을 걸고 TF 이외 TRQ 이행관리와 SPS 이행협의 등 추가 이슈를 들고 나오고 있음.

- TRQ 이슈는 기존 4차 의장초안에 있던 것으로 개도국들이 선진국 으로부터 쿼터를 얻어도 결국 TRQ 이행관리가 사실상 비관세장벽 역할을 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수확프로그램에 추가
 - 그 외에도 SPS도 기술장벽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특히 쉽게 부패되는 상품의 경우) 현행 SPS 규정에 근거하여 양자간 협의보다는 수준이 높고, 그렇다고 소송분쟁까지는 가지 이전에 보다 강력한 협의절차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브라질의 주장에 중남 미 국가들이 동조하고, 사무국도 간여하여 일정 부분 진전도 있음)
 - 중국의 경우 TRQ소진률이 낮아 브라질의 TRQ이행주장에 무반응.
 -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의장수정안의 TRQ 내용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이행이 달라 자칫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개도국의 S&D 철폐를 언급하고 있어 G10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음.
- 인도는 최근 식량안보 관련 매우 강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의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
- 현행 AMS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용의 경우 수매비축이나 자원빈곤 농민을 지원하는 경우 AMS 계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임.
 -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도는 국영무역, 식량원조, 식량 안보 등 계속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협상진전을 가로 막는 전략으로 보고 있기도 함.

- 최근 수산보조금과 관련하여 FAO의 수산현황보고서가 이슈가 되고 있음.
- 보고서 결론이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의 수출비중이 드디어 50%를 넘어섰다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어족자운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수산보조금 철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연계
 -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유 보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전히 대처에 어려움.
 - 특히 수산보조금 협상을 리드하고 있는 뉴질랜드, 미국, EU 등이 수산보조금 통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통보문제가 또 다른 쟁점
- 한편 당분간 심포지움 형태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
- 현재 노르웨이가 주관이 되어 수산보조금 심포지움이 추진중이고, 호주가 주동이 되어 식량안보 심포지움이 추진중.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심포지움도 준비중
 - 정부도 최근 계속하여 식량안보를 언급하고 있음.
- 한편 사무국 차원에서 WTO 조항에서 개도국 S&D 관련 조항을 검토한 적이 있고, 실제 관련 조항의 총 개수가 약 80여개 라고 들었으며, 이 중에서 28개 조항에 대해서 회원국간에 합의를 했다고 들었음.
- 이와 관련하여 DDA가 개발라운드 이므로 최근 28개 조항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이번 MC9에서 TF와 함께 small package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느낌

- 결국 2013년 MC9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① WTO S&D 조항, ② 무역원활화, ③ TRQ 이행, ④ 인도 주장의 식량안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봄
- 이와 함께 지금 DDA 밖에서 논의되고 있는 ITA와 서비스분야 복수국간 협정도 눈여겨 보아야 되는 파트임.
- 특히 ITA의 경우 해당 품목만 합의를 도출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 MC9의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될 수도 있음.
- 한편 미국의 새정부가 들어서면 TPA 문제도 관심을 두어야 함
- 신정부가 TPA를 추진할 지 관심임. 아니라면 MC9도 희망이 없을 지도. 대신 TPP가 커질 가능성도 다분
- 다른 한편 필리핀이 쌀 관세화를 다시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중이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13년 안에는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필리핀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